

성서에 나타난 장애인에 관한 연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중심으로-

전영수 솔로몬경영연구소 연구소장
황인태 협성대 교수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고정관념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산재로 인하여 중도장애를 입은 장애인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애인에 관한 문헌의 일부분을 고찰하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있어서 기여하고자 한다. 성서에는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무려 160회나 기술되어있다. 구약성서에서 89회, 신약성서에서 71회에 이른다. 구약은 죄(罪)의 댓가, 무능력자, 저주 등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장애인을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주관하신다고 여겨서 질병은 ‘죄에 대한 심판’이나 ‘저주’로 보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언서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소망하는 가운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참된 평화로 포용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각도로 조명된다. 특히, 신약성서는 장애인을 생명 존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보고 있다. 장애인을 복음전파의 대상이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이라는 발전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요한 9:2-3).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눅 4:18)를 위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아흔 아홉 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관련된 성경구절들은 궁극적으로 선교기관, 교단총회, 또는 지역교회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성경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계명과 복음의 핵심으로 가르치셨고 그대로 실천하셨다(막 10:45, 눅 22:27). 또 신학(神學)에서도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으로 ‘디아코니아’(δ ι α κ ο ν ι α) 즉, ‘봉사’를 의미하고 있다. 사회사업은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로 분류되는 장애인 복지사업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인 것이다. 장애인 선교가 활성화 되려면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와 신도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요약하여 기술하였으며, 성서에 나타난 장애인들에 관한 성구내용 10개의 문헌을 고찰하고,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서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문헌연구를 성서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성서에 나타난 장애인에 관한 고찰”에서 구약성서에 나타난 장애인을 대하는 인식은 순전히 본인이나 또는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악의 결과인 것으로 즉, 원죄(原罪)가 흐르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본적인 인간의 인권마저 무시한듯하다. 심지어 제사장은 신체의 손상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은 성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있다.(레 21:21-24) 그러나 신약성서에서는 장애인을 대하는 인식의 수준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인격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이 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제자(베드로, 요한, 빌립 등)들이 복음사역을 활동함에 있어서 각색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병자와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치유(治癒)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소경(시각장애인), 절뚝발이와 앉은뱅이, 중풍병자(지체장애인), 혈루증, 귀머거리, 병어리(언어장애인)등의 소외되고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정상인(비장애인)으로 회복시켜 주었다. 결코 장애인을 향하여 차별하거나 인권을 무시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현재의 비장애인은 항상 잠재적인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질병이나 산재(産災)로 말미암아 후천적인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2023년도, 보건복지부 통계 발표) 전체인구 대비 5.1%, 총 264만 2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3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만 6287명, 사망 등으로 등록 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9만 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 장애인보다 652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가 전체의 43.7%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애인 등록수를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장애인식개선과 이해도와 관련된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하여 가족단위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강의 및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성서에 나타난 장애인에 관한 10개의 문헌내용을 선정하여 기술하였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통합교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나, 연구의 한계점은 장애인에 관한 연구는 시대와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하는 과제임을 밝혀둔다.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고정관념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산재로 인하여 중도장애를 입은 장애인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애인에 관한 문헌의 일부분을 고찰하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있어서 기여하고자 한다. 성서에는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무려 160회나 기술되어있다. 구약성서에서 89회, 신약성서에서 71회에 이른다. 구약은 죄(罪)의 댓가, 무능력자, 저주 등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장애인을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주관하신다고 여겨서 질병은 ‘죄에 대한 심판’이나 ‘저주’로 보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언서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소망하는 가운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참된 평화로 포용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각도로 조명된다. 특히, 신약성서는 장애인을 생명존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보고 있다. 장애인을 복음전파의 대상이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이웃이라는 발전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요한 9:2-3).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눅 4:18)를 위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아흔 아홉 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관련된 성경구절들은 궁극적으로 선교기관, 교단총회, 또는 지역교회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성경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계명과 복음의 핵심으로 가르치셨고 그대로 실천하셨다(막 10:45, 눅 22:27). 또 신학(神學)에서도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으로 ‘디아코니아’(διακονια) 즉, ‘봉사’를 의미하고 있다. 사회사업은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로 분류되는 장애인 복지사업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인 것이다. 장애인 선교가 활성화 되려면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와 신도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요약하

여 기술하였으며, 성서에 나타난 장애인들에 관한 성구내용 10개의 문헌을 고찰하고,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서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규명하였다.

II.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관한 고찰

2.1 장애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이해

‘장애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쉽게 던질 수 있지만,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 및 경제적 여건과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신체적(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법적으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 받는 자를 말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애의 개념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장애(障碍; disability)’란 개념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늘 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장애를 결정하는 수많은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예측하여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장애란 개념은 복잡하기도 하고 동적이며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논쟁이 많은 개념이다.

국제사회에서의 공식적인 정의는 없는 상태이다. 장애를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장애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크게 4가지의 시각에서 정의를 한다면 첫째, 장애를 질병으로 보는 1950년대의 시각이다. 둘째,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보는 1970년대의 시각이다. 셋째, 장애를 손상으로 발생된 도미노현상으로 보는 1990년대 시각이다. 넷째, 장애를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2000년대의 시각으로 장애인식개선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폭 넓은 시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개선되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2015. 12)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대상에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도 매년 1회씩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다. 즉,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시행령 제16조)에서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학교, 특수법인, 공기업”(한국장애인 재단) 및 준정부기관 등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시행령에는 비하의 의미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여겨질 가능성 있는 용어는 변경을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존중하는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대상 기관을 정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며 시행규칙에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결과 제출방법을 정하여 인식개선 확대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 수준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 지역의 지방자치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엔에서 개최된 제61차(2006)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장애인권리협약”(한국장애인재단)이 통과되었다. 장애차별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인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편견의식과 부정적인 시선은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장애차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 편견을 불식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에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사국으로 하여금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제1항은 당국으로 하여금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효과적으로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단위를 포함하여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사회전반에서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고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령과 성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관한 선입견, 고정관념 그리고 비인격적인 관습을 근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장애인 차별금지 및 평등권에 관한 법률

인간은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말한다. 하지만 외모나 외양, 성별, 인종, 결함, 등에 의해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차별과 편견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면서 불평등한 환경에 노출된다. 특히,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인 장애, 사고로 인한 장애가 증가하면서 장애인 구도 구조도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열등한 존재’ 또는 ‘무능력자’라고 인식하며 공공연하게 차별과 불평등한 환경에서 수용 받지 못했던 존재의 대상에서 현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인식변화와 사회변화상징으로 인하여 차별적 시각이 개선되고 평등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대두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기회평등담론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는 현 상황에 따라 국가적필요성이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1919년 바이마르헌법 제151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규정한 이래 세계각국의 헌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UN은 「장애인권리선언」(1975년)을 선포하고 「장애인권리협약」(2006년)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1998년 12월9일 「대한민국장애인인권헌장」을 발표하였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4 장애에 대한 유형별 이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정의 및 유형을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한국장애인재단)

다음의<표 2-1>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황을 15개 유형으로 요약한 것이다.

<표 2-1> 우리나라 장애인 15개의 유형을 요약하였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기관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장애,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영구적으로 장애
		뇌병변 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실, 뇌졸중 등)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 결손 장애(시력 0.2이하)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음성기능, 언어기능의 영속적인 손상
		안면장애	안면부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가 지속
	내부기관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에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肝)장애	간의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생활의 제한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등 호흡기간 기능의 장애
		장루, 요루	배변기능, 배뇨기능의 장애
뇌전증 (간질)장애	간질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 70이하 (일처리가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	소아 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자료출처: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통합교재) p.56-57 참조.

Ⅲ. 성서에 나타난 장애인에 관한 고찰

3.1 레위기에 나타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찌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아와 여호와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음즉 나아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 하느니라 ...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레위기 21:11-23)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론의 씨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론의 씨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지만,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빵 곧 거룩한 것은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흠이 있었기 때문에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다. 여호와께서는 흠이 있는 자가 아니라 흠이 없는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빵을 드릴 수 있었고, 헌물을 드릴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조금 더 강하게 기준을 말씀하고 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지 말 것을 말씀하셨지만, 가족이나 친척들은 괜찮았다. 그러나 대제사장만큼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라 할지라도, 시체로 인해 자신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한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 제사장과 비교하면 과부를 취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신체가 불편한(장애) 일반제사장은 직무에서 배제되지만 혜택은 동등하게 누릴 수 있었다.(21-22절) 지성물과 성물은(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등의 제물중 제사장의 몫의 음식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대제사장에게 있지만, 그만큼 자기관리와 거룩함과 정결함에 힘써야 하는 모습임을 살펴볼 수 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대제사장이 거룩해져야 했고, 부정해지면 안 됐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더욱 더 거룩해야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약시대에서는 장애인(소경, 절뚝발이, 곱사, 난장이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이 상실되었으며, 장애인 대한 차별의식 강하였다. 그 이유는 장애자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이나 조상의 ‘죄’의 값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3.2 열왕기하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아람 왕이 가로되 같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개와 의복 열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한센 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을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한센 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열왕기하 5:5-7)

‘나아만’ 군대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는 치유를 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을 맞이하여 주지도 않는다. 다만, 자기의 종을 시켜 ‘나아만’에게 해야 할 일을,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일을 하도록 한다. 몸을 7번 물에 씻는 일이다. 이 단순한 일을 두고 나아만이 화가 나게 된다. 먼 거리를 아쉬울 것 없던 군대 장관이란 사람이 와서 청하는 일에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말에 타고 있는 채로 종을 통하여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나아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씻을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그를 그 종속들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하였다.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행하려 했을 것인데, 왜 쉬운 일을 안 하려고 합니까? 라며 설득을 하므로 그 쉬운 일을 하자, 씻은 듯이 치유가 되었다.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지만, 엘리사는 결코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선언한다. “이방인의 군대 장관이지만, 앞으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예배)를 드리겠다고 고백한다. 나아만은 한 가지 추가로 청하게 된다. 하나님께 자신이 현재 모시는 왕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자리에 자신을 데려가는데 그 앞에서 자신이 고개 숙이는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한다. 비록 몸은 굽히나 마음을 굽히지 않는 그 본질을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엘리사는 평안이 가라고 답하여 준다. 지체장애인의 나아만장군은 엘리사를 통하여 정상인(비장애인)으로 회복이 되었다.

3.3 예레미야에 나타난 장애인 인식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 보라 내가 그들을 복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 넘어지지 아니하고 허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예레미야 31:7-9)

인간이 살고 있는 어느 사회에서는 관용과 복지는 언제나 사각지대가 있어 왔다. 본문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돌이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때 그 무리 중에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들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들이 바로 맹인(시각장애인)과 다리 저는(지체장애인) 사람과 여인(나약한 부녀자)과 해산하는 여인(임산부)들이다. 아무리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돕는다고 하였어도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었고, 취약계층의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계속 받게 되고, 복지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받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 약한 자, 부족한 자, 못난 자, 소외된 자들이 모두 한 공동체에 거하며 같은 복과 은총을 누리게 된다.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고, 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진정한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무시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가장 열약한 이들에게도 그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은총이기에 그 모든 자에게 아무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복지가 있기를 바란다.

3.4 마태복음에 나타난 장애인 치유사역(1)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좃으니라 ” (마태복음 4:23-25)

예수의 사역당시 ‘갈릴리’는 동쪽은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 서쪽은 지중해 남쪽은 사마리아, 서북쪽은 ‘베니게’로 둘러싸여 남북이 약 80km, 동서가 약 45km 정도의 작은 지역이었다. 예수 당시에는 작은 마을에도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곳에는 어디에나 회당이 건립되어 있었고, 유대인 랍비에 의하면 예루살렘에만 460개 내지는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백성들은 안식일이나 주요 명절 때에 이곳 회당에 모여 기도와 율법을 배우는 일에 힘썼다. 특히 구약 율법서는 여러 지역의 언어로 번역하기도 했으며, 회당장의 허락에 의해 율법 교육에 합당하며 권위 있는 자가 나서서 율법을 해석, 교육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본문에서 “가르치시며…전파하시며…고치시니”(마 4:23)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전도의 세 가지 특수한 양식(樣式)으로서 모두 천국과 그리스도에 의한 통치를 암시하고 있다. 본문에서 ‘고치다’는 예수께서 천국이 축복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신적인 능력을 행하신 바 이는 흑암의 왕국이 파괴되고 천국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문에서 “모든 앓는 자...중풍병자”의 말씀은 ‘모든 앓는 자’는 질병에 대한 보통표현으로 볼 수도 있으나 본문의 내용은 ‘고질적인 병에 걸린 자’라는 뜻으로 의학적 처방으로는 치유 불가능한 질병을 가리킨다. ‘모든’이라는 수식어는 정신적 질환과 구분되는 육체의 모든 질환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이 육체적 질환에는 그 병중에 따라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으로 나누인다. ‘각 색병’이란 ‘가지 각색’의 병증이 크게 위급하지 않는 질병을 가리킨다. 이에 비해 ‘고통에 걸린 자’라는 병들어 거의 기진하다시피 고통당하는 중환자를 의미한다. 이상이 주로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었다면, 다음에 기록된 세 가지의 병명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귀신 들린 자’, ‘간질 하는 자’, ‘중풍병자’이다. ‘중풍병자’의 질병은 대뇌조직의 손상이나 척추신경의 파괴, 또한 중추신경 계통의 질환으로 인하여 야기된다. 이러한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예수의 기적들은 그의 ‘메시야’로서의 성격을 뚜렷하게 하고 있다.

3.5 마태복음에 나타난 장애인 치유사역(2)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좃으니라 한 한센병 환자가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디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한센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 (마태복음 8:1-3)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건포하시고 산에서 세상에 내려왔을 때, 한 문둥병자가 나타났다. 당시 유대사회에서의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이나 사람들과 함께 살수가 없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굴 같은 곳에서 기거해에만 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동네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접촉되거나, 바람에 그 사람의 체취가 문으면 저주를 받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은 문둥병 걸린 자를 돌로 치고 저주를 하였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나는 문둥병자이다’라고 소리쳐서 사람들을 피하게 하였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문둥병 환자가 당돌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난 것이다. 문둥병 환자는 예수께 간단한 말씀 한마디를 하게 된다.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디”라고 아주 간단한 여섯 마디의 말씀으로 자신의 불치의 병을 치료받고자 간절하게 요청한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한다. 예수는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심으로써 부정환 자가 된 것이라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예수는 울

법의 완성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이다. 즉, 예수는 율법에 갇혀있지 않고 율법을 지배하신다. 지체장애인을 부정하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치료하여 정상인으로 회복하여 주셨다.

3.6 마가복음에 나타난 장애인 치유사역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 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병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마가복음 7:32-37)

본문에서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막 7:32)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데리고 온 환자는 귀먹고 말을 하기 곤란한 언어장애인이다. 귀머거리는 자연히 말하기 곤란해지거나 아예 무의미한 소리만 지를 줄 아는 병어리가 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어눌하다’(μοῦιλᾶλος; 모기랄로스)는 병어리, 간신히 말하는 장애가 있는 의미가 있다. 신약성서에서 이곳 한 곳에만 나오며 70인역(LXX)에서도 단 한 곳에만 제시되었다. 본문에서 “그 사람(어눌한 자)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막 7:33)라는 말씀은 환자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피해간 이유로는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36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중들의 흥분된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병을 고치는 기적을 비밀로 하려 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예수께서 환자와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즉, 그 환자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온 피동적 인물이었고, 자신의 치유 의지가 거의 없던 상태였을 것이다. 이에 예수는 그 무감각하고 피동적인 인격에게 당신의 존재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시려 했을 것이다. 본문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막 7:32)이라는 말씀은 이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치병행위였다.

예수께서도 안수(按手)의 행위를 통하여 치유를 하셨다. 그리고 본문에서의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막 7:33)의 말씀은 환자의 취부에 직접 접촉하면서 침(spit)을 사용하는 치료법은 당시 일반 백성들 사이의 민간요법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것 같으며 특히 침이 치유의 효과와 화를 막아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치병활동을 하였다는 고대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안’(A.D. 69-79)이 소경에게 침을 눈에 발라 치료했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본문에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

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막 7:34)라는 말씀에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행동은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의 ‘에바다’는 아람어의 음역으로 ‘여파다’는 ‘열리라’(Be opened!)의 의미이다. 마가는 그 뜻을 단지, 닫혀진 귀에만 관련된 말이 아니라 ‘혀’(舌)에도 그 영향이 미치는 명령어로 보아야 한다.

3.7 누가복음에 나타난 장애인 치유사역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한센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7:21-23)

유대사회의 사람들은 병들기는 쉬워도 고침 받기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잘 크지를 못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났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질병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으로서 가장 괴로운 일은 병(病)이다. 병은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며 인생의 삶을 잃어버리게 하는 불청객이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먼저 그들에 대한 지극한 연민과 사랑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한 대가나 칭송을 받으려 하신 적이 없으며 어떤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기 이전에 병마에 신음하는 인생에 대한 연민자체 때문에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여주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치료 행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서는 애곡하는 것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암시가 들어 있고 따라서 이러한 치료 행위에 나타나는 그의 이적적인 권능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8 요한복음에 나타난 장애인 치유사역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실로

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 9:1-7)

본문의 내용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시면서 태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된다. 이에 제자들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소경이 되었느냐고 물어본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라는 물음에서 유대인 랍비들의 그릇된 교훈을 살펴보게 된다. 사람이 태어 나기 전에 그 영혼이 벌써 있었다는 사상에 근거한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은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인간의 질병이나 불행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은 성서적으로 확실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본인의 죄악으로 말미암지 않는 불행이나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은 ‘소경 자신의 죄가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이 겪는 불행에 대해서 논쟁을 붙이는 것보다, 불행을 상대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다행한 일들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인간의 불행을 고쳐서 복이 되게도 하시는 사람과 능력을 가지셨다. 인간들은 불행한 것을 보고 피하며 저주하기에 급급하지만, 하나님은 불행한 일을 상대하시며 자비를 베푸신다. 본문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spit)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요 9:5-7) 예수는 소경을 고치시는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 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영생의 빛이시다.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신 것은, 혹설에 의학적 치료를 위하여 하신 것이라고 한다. 실상 침은 안질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학설도 있다. 그러나 예수의 이 행동은, 그러한 민간요법의 자연적 치료에 의하여 그 소경의 눈을 밝히려는 의도가 아니고 다만, 어떠한 피조물을 사용하시고 라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진흙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비유하고, 침은 그의 말씀의 신성을 비유한다고 한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요 9:7)는 말씀에서 ‘실로암’이란 것은, 히브리어 마알랄(מעלל)이며, 본 뜻은 행위(deed), 실행(practice)이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동남쪽으로 성 안에 있다. 그것은 ‘히스기야’왕이 전쟁 때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이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소경은 본래 보지 못하여 매우 갑갑함을 느끼는데,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른 것은 그로 하여금 더욱 갑갑함을 느꼈을 만드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따라 ‘실로암’ 못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었다.

3.9 사도행전에 나타난 장애인 치유사역(1)

“제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 3:1-10)

본문의 내용에서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행 3:2)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앓은뱅이였던 사람이다. 이것은 그가 중간에 후천적인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선천적인 장애인) 40세(행 4:22)가 되는 지금까지 하체가 마비되어 고통을 지닌 것을 보여줌으로써 회복될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앓은뱅이의 걸인이 마흔 살이 되는 지금까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였어도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일이 전개됨을 보여준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행 3:6)의 말씀은 베드로가 앓은뱅이에게 보기 드문 기대감을 불러 일으켜 놓고 당일 하루하루 생계의 도움을 구하던 걸인으로 하여금 허탈감에 빠지게 했다는 견해도 있지만, 곧 이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행 3:6)라고 곧바로 선언되는 베드로의 선포는 앓은뱅이로 하여금 어떤 신기한 기대감(期待感)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베드로의 선언 속에서 우리는 물질의 소유를 초월해서 사도들의 청빈함을 엿볼 수 있으며, 예수의 말씀대로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이 구절을 적용하여 사도들에게 물질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앓은뱅이에게 은이나 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차원에서 선포한 것이다. 한편, 본 구절이 궁핍한 자들에 대한 물질적 구제를 금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본문의 앓은뱅이 또한 육신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다.(행 3:7) 다만 본 사건은 사도들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신체보다는 영적 치유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행 3:6)라는 말씀은 사도들이 소유한 최고의 보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하여 걸인이 구하던 은과 금, 즉 세상의 보화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린 자들이었다(빌 3:8). 본문에서 ‘이름으로’라고 표현한 것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 및 본질 즉 그 사람의 존재를 대표하여 주는 것이

었다.(창 25:19-26) 그러므로 이름이란, 그 사람 인격(人格)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신앙심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믿는 예수의 능력과 은혜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병자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3.10 사도행전에 나타난 장애인 치유사역(2)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좃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앓은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사도행전 8:4-8)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통해서 볼 때, 박해와 순교는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본문에서 소개되는 ‘빌립’은 예루살렘교회의 일곱 집사 중위 한 사람으로 보인다. 교회에 대한 박해로 말미암아 흠어진 사마리아,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하였던 ‘빌립’(Philip)의 말과 치유사역은 권위가 있었다.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은 그가 전파하는 말에 권위를 부여하여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나타냈다.

본문에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행 8:7)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간 것은 귀신이 아니라 귀신들린 사람이 된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앓은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행 8:7-8) ‘빌립’에 의해 치유 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불구자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불구자까지 포함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중풍병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파랄렐뤼메노스’; παραλελυμένος)는 부분적인 기능이 마비된 것과는 달리 전신의 기능이 마비된 병자를 가리킨다. 의사였던 누가 저자는 예리한 관찰에 의해 병자의 병명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다음의 <표 3-1>은 성서에 나타난 장애인에 관한 10개의 성구문헌을 탐색하여 요약한 것이다.

<표 3-1> 성서에 나타난 장애인에 관한 성구문헌 분석요약

한글개역성경	장애인에 관한 성구	장애인에 관한 성구	장애인에 관한 성구	장애인에 관한 성구	장애인에 관한 성구
성서	(레 21:11-23) 레위기서의 장애인에 관한 인식	(왕하 5:5-7) 열왕기하의 장애인에 관한 인식	(렘 31:7-9) 예레미야의 장애인에 관한 인식	(마 4:23-25) 마태복음의 장애인에 관한 인식(1)	(마 8:1-3) 마태복음의 장애인에 관한 인식(2)
	(막 7:32-37) 마가복음서의 장애인에 관한 인식	(눅 7:21-23) 누가복음서의 장애인에 관한 인식	(요 9:1-7) 요한복음서의 장애인에 관한 인식	(행 3:1-10) 사도행전의 장애인에 관한 인식(1)	(행 8:4-8) 사도행전의 장애인에 관한 인식(2)

*자료출처: 한글개역성경(1998). 필자: 초안구성

IV.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문헌연구를 성서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성서에 나타난 장애인에 관한 고찰”에서 구약성서에 나타난 장애인을 대하는 인식은 순전히 본인이나 또는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악의 결과인 것으로 즉, 원죄(原罪)가 흐르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본적인 인간의 인권마저 무시한듯하다. 심지어 제사장은 신체의 손상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은 성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있다.(레 21:21-24)

그러나 신약성서에서는 장애인을 대하는 인식의 수준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인격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이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제자(베드로, 요한, 빌립 등)들이 복음사역을 활동함에 있어서 각색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병자와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치유(治癒)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소경(시각장애인), 절뚝발이와 앓은 맹이, 중풍병자(지체장애인), 혈루증, 귀머거리, 병어리(언어장애인)등의 소외되고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정상인(비장애인)으로 회복시켜 주었다. 결코 장애인을 향하여 차별하거나 인권을 무시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현재의 비장애인은 항상 잠재적인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질병이나 산재(産災)로 말미암아 후천적인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2023년도, 보건복지부 통계 발표) 전체인구 대비 5.1%, 총 264만 2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3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만 6287명, 사망 등으로 등록 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9만 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 장애인보다 652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가 전체의 43.7%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애인 등록수를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장애인식개선과 이해도와 관련된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하여 가족단위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강의 및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성서에 나타난 장애인에 관한 160개의 문헌 중에서 10개의 성구문헌의 내용을 선정하여 기술하였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통합교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나, 연구의 한계점은 장애인에 관한 연구는 시대와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하는 과제임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권선진 (2007), 장애인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 권지명 (2022),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서울: 설렘.
- 김근휘·이진향 (2023), 정신장애인이 인식하는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서 장애인수용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4(2), 865-876.
- 김만지 (1993), 사회사업실천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실 (2008), 성인발달장애인의 부모태도와 자기결정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식·김대건 (2022),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만족,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8(1), 65-85.
- 김성희 (2016), 장애인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재활복지, 20(3), 17-43.
- 김용득·유동철 (2005),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 인간과 복지.
- 김윤정·이상진 (2017), 한국 장애인의 건강상태, 복지서비스이용과 가족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5), 615-624.
- 김인호 (2002), 대학생의 장애인 인식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권 (2000), 성경(한글해설), NIV BIBLE. 서울: 생명의 말씀사.
- 남희은 (2015), 지체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지원과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30, 117-143.
- 박경수 (2006), 장애인복지 소비자주의 관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유형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승희·우충완·박지연·김원영 역 (2016), 장애인란 무엇인가? 서울: 학지사
- 박현숙 (2018), 성인장애인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과의 영향관계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8(1), 627-635.
- 배성우·박병선 (2016),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의 10년간 종단적 검증, 한국사회복지학회, 68(3), 127-147.
- 백은령 (2003),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환경요인과 사회통합정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백순심 (2021), 불편하지만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서울: 설렘.

- 보건복지부 (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세종 : 보건복지부.
- 신승배 (2021), 한국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 8(4).
- 이계승 (2014),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과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의 네트워크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2), 375-402.
- 이영미 (2004), 장애인의 자기결정력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지선 (2008),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isenden, S. (1989), A charter for personal care, in *Progress*, 16. Disablement Income Group.
- Dejong, G. (1979), The movement for independent living: origins, Ideology and implications for disability reearch, East Lansing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 Hurst, C., Corning, K., & Ferrante, R. (2012), Children's acceptance of others with disability: the influence of a disability-simulation program., *Journal of genetic counseling*, 21(6), 873-883.
- Jones, D. (1993), Informal cares and their elderly dependents: a community based longitudinal study, in Diana Robinns, *Community Care; findings form Department of Health Funded research 1988-1992*, London, HMSO.
- Oliver, M. (1991), *Social Work; Disabled People and Disabling Environment*, London; Kingsley press.
- Schairer, Cynthia. (2011), "Communities of Prosthesis Users and Possibilities for Personal Information." In *Disability and Community*, eds, Allison C. Carey and Richard K. Schartz, Bingley, UK: Emerald.
- Whiteneck, G. G., Charlifue, S. W., Gerhart, K. A., Overholser, J. D., & Richardson, G. N. (1992), Quantifying handicap: a new measure of long-term rehabilitation outcomes.,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3(6), 519-526.